



기호일보

뉴스 오피니언 인천 경기 지역 스포츠 사람과 사람 기호TV

델리블리 롱킬카

[눈시림 없음] 쓱쓱 빗어만 주면 속눈썹영양제

델리블리

홈 > 사회 > 인천

획일화된 등급 판정에 생존마저 위협

복지사각으로 내모는 장애인 제도를 <상> 등급제도 폐지해야

이창호 기자 | 입력 2014.04.29 | 6면 | 댓글 0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빠져나오지 못한 뇌병변·청각장애인이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 이달 초엔 70대 노모가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기 힘들어 함께 자살하는 등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아 비판받고 있는 제도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활동보조서비스 등 혜택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며, 부양의무제는 (부양이 가능한)경제적 능력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송모(53·서울 성동구)씨는 집에서 머물던 중 화재가 발생해 사지와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송 씨는 언어장애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고 움직임도 불편해 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뇌병변5급·청각3급)이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참여를 위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1·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급 월 118시간(108만 원), 2급 94시간(81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4급 장애인의 경우 중복 장애를 갖고 있으면 월 50시간(43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원2급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 과정 패키지
완벽하게!

이론 최저
2.5만 원대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최신뉴스

-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이'
-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도내 중기, 2인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청병
- 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
-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비사...

델리블리 롱킬카라

광고 델리블리

부평시장역 2번출구

광고 플란치과병원

8만원 이상 구매시 0원
혜택

광고 글램디

케겔운동 하지마세요

광고 웨이브케어

비수술눈밀지방 59만원
의120468

광고 닥터홀즈의원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

광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Explore Registration
Options

광고 SIGGRAPH 2024

이게 속눈썹
영양제라고?

광고 토소웅

진짜 작가 데뷔하고
싶다면?



이처럼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정도에 따라 판정되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급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판정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변을 당하는 장애인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별로 기간은 다르지만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박모(39·간질장애4급)씨가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돼 수급비와 활동보조 등 복지제도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자살한 일도 있었다.

정부가 뒤늦게 지난달 28일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2016년께 적용할 방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종합판정도구 개발 외에는 내용이 없고 예산계획도 없는 정책은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사용계획이 함께 들어간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단체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과 경증장애인의 서비스 방향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이 우선"이라며 "잘못된 판정시스템을 개선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특성을 고려하고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AILBO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원해요
0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광고 KB손해!

듀오에서는
탄생중

광고 듀오

세안 직후
유지앰플

광고 NARINF

기업회원
이벤트

광고 에이비스

오늘의 포토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워킹뉴스

1.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인천지역 곳곳...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이'
2.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이'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3. 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 도내 중기, 2인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청병
4. '화성 뱀놀이 축제' 방문객 호응 속에 성료 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
5. 선도지구 지점에 1기·2기 신도시 희비쌍공선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비...
6. 도내 중기, 2인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청병
7.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비...
8. 北 오물풍선 또 살포... 안산에선 승용차 유리...
9.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10. 밤바다 수놓는 화려한 불꽃

당신만 안 본 뉴스

고교 체험학습 답사는 교감 인솔은 교장... 해외여행 나눠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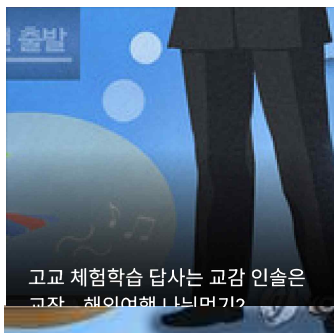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출구 없이 진퇴양난

펜싱협회, 올림픽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 '편파 선발' 의혹

제2순환 고속도 인천~안산 2구간 대안노선도 'NO'

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레드카펫 밝는 '베테랑 2' 제작진과 출연진



고교 체험학습 답사는 교감 인솔은 교장... 해외여행 나눠먹기?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 서울 강동역 SK시공 "0원"계약금, 방3 욕실2, 378실
- 지속적인 척추통증, 단기간 해결 가능해.."치료법 개발"
- 로또 1123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견..!?

①

교보문고과
작가데뷔
도와드려요

광고 창작의날씨

유명함 쌍둥이는
자랐습니다

광고 HomeTalk

웃긴 해변 사진들

광고 TheFunPost

근로장려금 지원금
신청

광고 근로장려금

주요기사



선도지구 지청에 1가·2기 신
도시 희비쌍곡선



김동연 "기회소득 시발점은
예술인... 노고에 감사"



갈 곳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
'든든한 울타리'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놓고 시끌



[기호일보 '글 쓰며 놀아 봐
요'] 여섯 번째 교실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환
경부 장관 발언에 발칵

오늘의 포토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워킹뉴스

-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인천지역 곳곳...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아'
- 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아'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도내 중기, 亞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첨병
- '화성 뱃놀이 축제' 방문객 호응 속에 성료여주 소상공인·신세계 '한 마을 식구'
- 선도지구 지청에 1가·2기 선도시 희비쌍곡선'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차 가로주택 정비차...
- 도내 중기, 亞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첨병
- 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
- 北 오물풍선 또 살포... 안산에선 승용차 유리...
-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밤바다 수놓는 화려한 불꽃

기호일보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비전타워 14층

전화 : 총무국 032-761-0007~8 편집국 032-761-0004~6 디지털뉴스부 032-761-0009 | 팩스 : 032-761-0015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기아자동차 빌딩 4층) | 전화 : 031-898-6767~8 | 팩스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11층 1102호 | 전화 : 031-872-2990 | 팩스 : 031-872-2991

등록번호 : 인천 아01548 | 등록일 : 2021-07-16 | 발행인 : 서강훈 | 편집인 : 한창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윤리강령 독자위원회 사내게시판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매일무단수집거부 RSS

회사소개

인사말 찾아오시는길

조직 및 연락처

고객센터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불편신고 제휴문의

오늘의 포토



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최신뉴스

- 1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인천지역 곳곳...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아'
- 2영흥 에코랜드 2년째 방치에 '가슴앓아'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3여주 수상공원·신세계 '한 마을 식구'도내 중기, 亞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첨병
- 4'화성 뱃놀이 축제' 방문객 호응 속에 성료여주 수상공원·신세계 '한 마을 식구'
- 5선도지군 지절에 1기·2기 신도시 회비쌓공선...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비...
- 6도내 중기, 亞 이슬람시장 판로 개척 첨병
- 7GH, 내달 26일까지 노후 주거지 가로주택 정...
- 8北 오물풍선 또 살포... 안산에선 승용차 유리...
- 9만루홈런 문상철에 '쌍수'
- 10밤바다 수놓는 화려한 불꽃